건강보험심사평가원
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
130-706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(서초동) 건강보험심사평가원
Tel. 1644-2000 Fax. 02-6710-5742 www.hira.or.kr

의료평가1

'콜린성 두드러기' 진료인원 연평균 5.7% 증가, 10~20대 젊은 남성에게 집중 발생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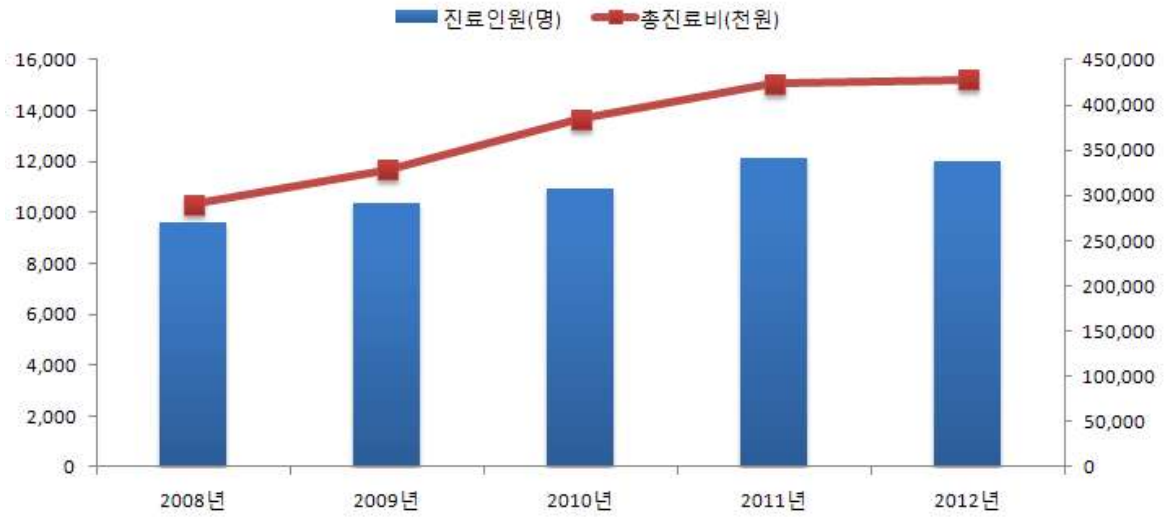

그림1. <콜린성 두드러기(L50.5)>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 추이(2008~2012년)

표1. <콜린성 두드러기(L50.5)> 성별 진료인원 및 진료비 현황(2008~2012년)

구 분	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
진료인원 (명)	계	9,629	10,395	10,927	12,161	12,007
	남	5,599	6,106	6,400	7,064	7,136
	여	4,030	4,289	4,527	5,097	4,871
총진료비 (천원)	계	290,437	328,618	384,938	423,618	428,017
	남	182,115	210,730	247,610	274,493	277,770
	여	108,322	117,888	137,328	149,125	150,246

표2. <콜린성 두드러기(L50.5)> 진료인원 성별 점유율 및 증가율(2008~2012년)

구 분	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연평균
성비(여성대비남성)		1.4	1.4	1.4	1.4	1.5	-
점유율	남	58.1%	58.7%	58.6%	58.1%	59.4%	-
	여	41.9%	41.3%	41.4%	41.9%	40.6%	-
전년대비 증가율	계	-	8.0%	5.1%	11.3%	-1.3%	5.7%
	남	-	9.1%	4.8%	10.4%	1.0%	6.3%
	여	-	6.4%	5.5%	12.6%	-4.4%	4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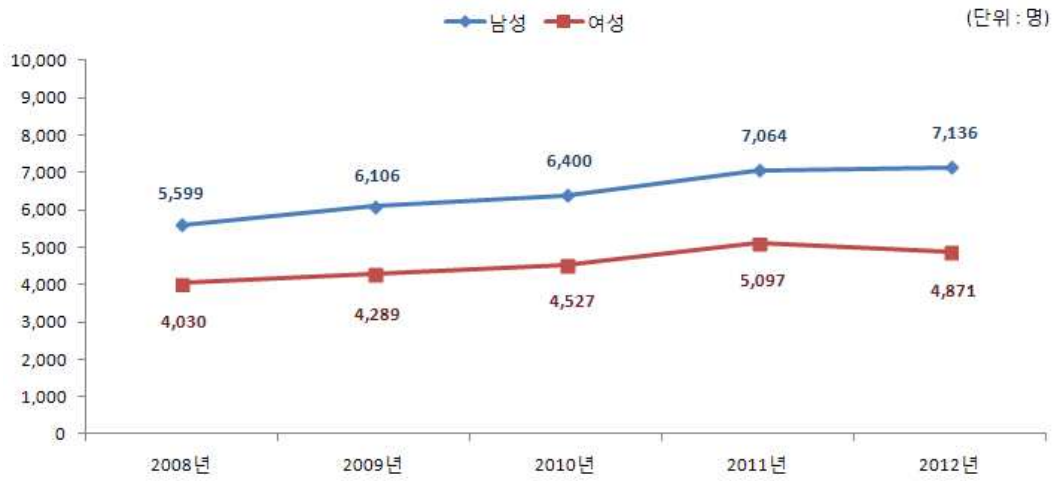

그림2. <콜린성 두드러기(L50.5)> 성별 진료인원 추이(2008~2012년)

표3. <콜린성 두드러기(L50.5)> 연령별/성별 진료인원 및 점유율(2008~2012년)

구 분		진 료 인 원 (명)					연령별 점유율 (%)				
	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
0~9세	계	559	554	502	599	571	5.8%	5.3%	4.6%	4.9%	4.8%
	남	315	317	267	332	326	5.6%	5.2%	4.2%	4.7%	4.6%
	여	244	237	235	267	245	6.1%	5.5%	5.2%	5.2%	5.0%
10~19세	계	1,733	2,015	2,207	2,404	2,342	18.0%	19.4%	20.2%	19.8%	19.5%
	남	1,314	1,566	1,690	1,869	1,826	23.5%	25.6%	26.4%	26.5%	25.6%
	여	419	449	517	535	516	10.4%	10.5%	11.4%	10.5%	10.6%
20~29세	계	2,097	2,346	2,368	2,598	2,605	21.8%	22.6%	21.7%	21.4%	21.7%
	남	1,506	1,672	1,745	1,874	1,880	26.9%	27.4%	27.3%	26.5%	26.3%
	여	591	674	623	724	725	14.7%	15.7%	13.8%	14.2%	14.9%
30~39세	계	1,456	1,486	1,591	1,734	1,669	15.1%	14.3%	14.6%	14.3%	13.9%
	남	770	810	866	971	964	13.8%	13.3%	13.5%	13.7%	13.5%
	여	686	676	725	763	705	17.0%	15.8%	16.0%	15.0%	14.5%
40~49세	계	1,403	1,559	1,602	1,705	1,730	14.6%	15.0%	14.7%	14.0%	14.4%
	남	656	680	697	729	823	11.7%	11.1%	10.9%	10.3%	11.5%
	여	747	879	905	976	907	18.5%	20.5%	20.0%	19.1%	18.6%
50~59세	계	1,108	1,195	1,301	1,594	1,562	11.5%	11.5%	11.9%	13.1%	13.0%
	남	512	521	548	639	676	9.1%	8.5%	8.6%	9.0%	9.5%
	여	596	674	753	955	886	14.8%	15.7%	16.6%	18.7%	18.2%
60~69세	계	782	760	814	899	889	8.1%	7.3%	7.4%	7.4%	7.4%
	남	334	349	362	395	379	6.0%	5.7%	5.7%	5.6%	5.3%
	여	448	411	452	504	510	11.1%	9.6%	10.0%	9.9%	10.5%

70세 이상	계	491	480	542	628	639	5.1%	4.6%	5.0%	5.2%	5.3%
	남	192	191	225	255	262	3.4%	3.1%	3.5%	3.6%	3.7%
	여	299	289	317	373	377	7.4%	6.7%	7.0%	7.3%	7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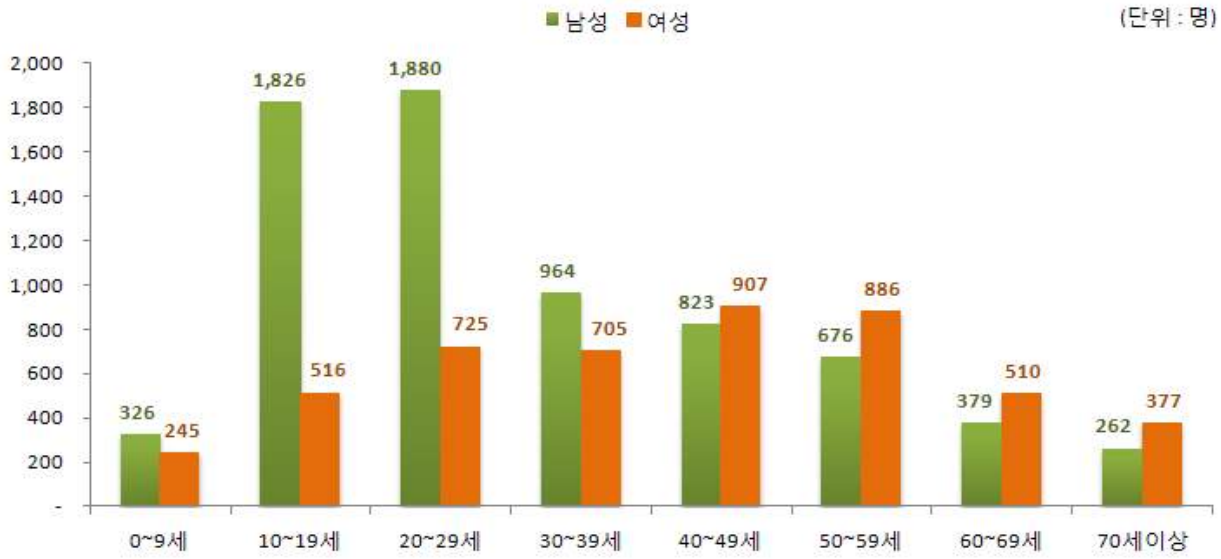

그림3. <콜린성 두드러기(L50.5)> 10세구간 연령별 진료인원 성별 비교(2012년)

표4. <콜린성 두드러기(L50.5)> 연령구간별 성비(2012년 기준)

구분	0~9세	10~19세	20~29세	30~39세	40~49세	50~59세	60~69세	70세이상
성비(여성대비남성)	1.3	**3.5**	**2.6**	1.4	0.9	0.8	0.7	0.7

□ 콜린성 두드러기는 갑작스러운 온도변화,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뒤 심부 체온이 1℃ 이상 높아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열성 두드러기이다.

- 신체는 부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이 땀샘을 자극하여 수분을 배출하며 체온조절을 하는데, 이 과정에서 아세틸콜린이 비만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콜린성 두드러기가 발생하게 된다.
- 10대~20대의 진료인원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남성 진료인원이 해당 연령에 집중되기 때문인데, 10대~20대 남성은 타 연령대에 비해 운동 등의 활동량이 많아 체온이 높아지는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.

□ 주요 증상은 두드러기와 함께 심한 가려움증과 따가움을 느끼는 것이며, 증상이 몇 분간 지속되다가 보통 한 시간 내에 가라앉는 편이다.

- 증상은 1~2㎜ 정도의 작은 팽진과 함께 1~2㎝ 정도의 홍반성 발적이 나타나며,

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한 전신에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특징이다.

- 콜린성 두드리기 발생 시 히스타민 억제를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여 증세를 완화한다.

□ 콜린성 두드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과도한 실내운동, 뜨거운 사우나와 찜질, 더운 탕욕 등과 같이 갑자기 체온을 상승시키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다.

- 정신적 스트레스도 콜린성 두드러기를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, 정서적 자극이나 심리적 불안을 제거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.
- 콜린성 두드러기는 치료를 해도 몇 개월에서 몇 년 안에 재발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평상시 습관을 통해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.